동화사 사태, '팔공총림 해제'에서 징계까지

중앙종회, 총림 운영 부실 등 지적
제233회 임시회서 찬성 50표 가결
동화사, 즉각 반발·강경 대응 예고
법적 다툼 시작…종단도 실태 파악
중앙징계위, 9월 1일 '직무정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화사 전경. 사진=동화사 홈페이지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은 중앙종회와 동화사 사이의 갈등이 수개월 누적된 결과다. 사태의 표면적인 출발점은 올해 3월 중앙종회가 내린 '팔공총림 해제' 결의였다.

중앙종회 '팔공총림 해제' 결의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팔공총림 해제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재안 스님(당시 총림실사특위 위원장)은 총림실사특위가 팔공총림 동화사를 실사한 결과 △총림 유지 요건인 강원·율원이 학인 수 미달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교육기관 예산을 전년 대비 61% 삭감해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구 운영 전반에 방장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적의원 81명 중 73명이 투표해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팔공총림 해제의 건'은 가결됐다. 이로써 동화사는 2012년 지정 이후 13년 만에 총림에서 해제됐다.

동화사의 반발과 대책위 구성

동화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교육기관 정기 실사 결과 '지적 사항 없음'으로 적시된 공문을 공개하며 "총림실사특위의 감사 결과는 허위보고"라고 맞섰다. 4월 3일에는 임회를 열어 '팔공총림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총무원법, 총림법, 중앙종회법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동화사 재적승 일부는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를 결성, 4월 8일 "총림 해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내부 갈등도 표출됐다.

중앙종회 '조사특위' 구성

중앙종회는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했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동화사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6월 10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동화사 특위)'를 구성했다.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은 "동화사에서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과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와 해종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호법부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표적 감사 논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격론이 이어졌다. 결국 표결 결과 41명의 동의로 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특별감사와 법정 공방

총림 해제 결의로 촉발된 논란은 곧 종단 감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실태 파악을 위해 4월 14일과 21~22일 특별감사를 시도했지만, 동화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24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총무원의 설명이다.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동화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6월 11일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동화사는 즉각 가처분 결과에 항소했다.

징계 절차와 직무정지

결국 종단은 감사 거부와 사회법 소송 제기를 이유로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 23일 1차 회의에서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8월 19일 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참회하고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앙징계위는 9월 1일 3차 회의에서 감사 거부와 행정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화사는 혜정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최종 징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부주지 법민 스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화사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총림 해제 원인으로 지목됐던 '과도한 방장 권한 행사' 등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동화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잘 보고 들어야 통합"

진우 스님, 경청통합수석에
"국민 어려움에 경청"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에게 '경청'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9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이날 대화에서는 '경청'이 강조됐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관세음보살이 경청의 보살이라는 것을 원장스님 덕분에 알게 됐다"면서 "국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늘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자 진우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잘 관(觀)하고 잘 들어 중생을 구하는 분"이라며 "종교를 넘어 그 뜻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청 뒤에는 해결을 염원하는 뜻도 담겼다"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에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복지 분야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하반기도 '대학생 전법' 활성화 박차

영캠프, 9월 16일 장충체육관서
학생 3000여 명에게 수계 예정
9월 23일 탈북민 불교동아리 창립
APEC 맞아 간화선 프로그램 운영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 이하 건학위)는 9월 3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별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2025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이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영캠프'는 9월 16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며, 이사장 돈관 스님을 전계사로 약 3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날 예정이다.

'영캠프'는 1부 수계법회와 장학금 수여식,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문화행사에서는 학생 참여 이벤트와 불교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피프티 피프티, 보이넥스트도어 등 아이돌그룹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된다. 9월 23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창립법회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동화사 전 주지 능종 스님,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이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정상들과 외빈 등 관계자들이 한국불교 간화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은 10월 28일 교내 선센터 등에서 APEC 참가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APEC 2025 KOREA 간화선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도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동국대 석좌교수)이 맡는다.

신중일 기자

"교사 불안엔 '명상' 효과적…학생에도 긍정 영향"

조계종 미래본부, '선면상, 미래 교육 깨우다' 세미나

이규미 아주대 명예교수 발제
교사, '소진'으로 감정 소모 커
안녕감 · 만족도 등에 명상 탁월



교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명상 프로그램이 소진(심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해 정서고갈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심리적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사례들이 소개됐다. 교사의 마음 평안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규미 아주대 명예교수(나우리심리상담연구소장, 사진)는 8월 30일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가 서울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선명상 미래교육을 깨우다-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교사 대상 명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이 명예교수는 먼저 교사는 교사들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는 데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사례 7가지를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소진을 호소하는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을 통해 삶의 만족과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스트레스와 소진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예교수는 "명상은 안녕감, 교사·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감소, 자기조절력, 삶의 만족도, 마음챙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드러났다"며 "특히 소진감과 심리적 고통 등 부정적 정서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학급 분위기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내영 기자

